

## 지성의 사회환원 역할로서의 디자인 교육

김 인 예 (인덕·웅진전문대)

이편 이는 이렇게 비유하였다.

한 사람은 소의 고삐를 바짝 꺾어 자신이 앞에서 소를 힘껏 끌고 애써 나아가는데, 또 한 사람은 소의 고삐를 꺾지는 꺾었으나 그 줄을 느슨하게 하며 소가 미처 자신이 고삐에 꺾여있는지조차 모르며 멀리 뒤에서 그 소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그 소가 스스로 갈 길을 알아서 가도록 하면서 가끔씩 길을 잘못 들어 낭떠러지 쪽으로나 걸길로 빠지려고 할 때 그 때에만 고삐를 낚아채 제 길로 바로 잡아 줄뿐이라고.

깊이 곱씹어 음미해야 할 우리의 교육현실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본 글을 시작하기로 한다.

### 교육의 전환 1. 방임(放任)으로부터 방목(放牧)으로

앞에서 언급한 비유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가장 다울적인 방법의 조직과 제도의 체제에 일방적으로 적용시켜 나아가는 극단적인 예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자율적인 방법을 지향하되 최소한의 경계와 원칙으로서의 규범을 일깨우면서 가장 적극적인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을 이끄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제한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므로써 전체에 대한 인식 부재의 방종적 방임의 자세가 아니라, 한 개개의 책임에 입각한 자율적인 자유의지가 전체에로의 조화적에 맞물려 질 때 가치로서 발생되어지는 방목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육현장 - 가정, 학교, 사회 등 - 의 잣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 교육의 전환 2. 적용으로부터 창조·발견으로

그러면 잠깐 우리의 교육이 근·현대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기로 하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항의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한계에 의한 외압적인 세계조류 속에서 열려져 나간 근·현대사의 역사전개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여과의 분명한 의지가 부족

한 상태에서 단절, 변질, 왜곡의 시대상황을 거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진 근대화의 최대 당면 과제인 국가의 경제력 구축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아래 각 개개의 개성과 비판적 기질은 오히려 기세나 축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최선의 체제 유지를 위한 무조건적인 적용에의 함몰이 최고의 삶의 방편으로 가치화 되어 졌다고 보겠다.

이러한 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식 저변에 깔려있던 기초적인 창조적 상황과 지혜로운 기질은 무표정적이며 비 표현적인 침묵양상으로 부정적인 적용이 강조되어 졌으며, 더구나 이때의 침묵은 과연 어떠한 개념의 언어성을 가지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켰을 것인지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진정한 의미로서의 민주화를 떠나가는 이즈음의 시대 혼란은 바로 이와 같은 억압된 구조 속에서, 경제력 일변도의 변화추이속도와는 달리 문화의식 자체의 성숙한 속도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의식지체 현상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탈 구조주의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오늘날의 다소 표류하듯 혼란스러운 사회전반에 걸친 양상을, 진정한 다인화와 다양화의 새로운 가치를 향해 들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본인의 견해가 지나치게 낭만적인 감상적 관점이기만 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나름의 근거를 본인은 우리의 상장으로 대변되는 태극정신에서 찾는 것이며, 또한 그 단절과 변질, 왜곡되어진 근·현대사의 올바른 '중심새우기'의 회복과 환원의 접목대상이 바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뿌리깊은 전통으로 거기 그렇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환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아는 까닭에서 인 것이다.

되돌아 갈 근본이 있다는 것은, 현재를 깨물고 미래로 나아가 추진의 원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의미하며, 그것이 곧 장구한 역사를 지닌 순수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자산임을 또한 확신하는 까닭에서인 것이다.

### 교육의 전환 3. 소수 지식인(elite)으로부터

다수 지성인(intellectual)으로

여기서 잠깐 사전상의 두 단어를 살펴보면, 생활 일반에서 통용되어지는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개념은 영어'clite'로 그 내용이 귀결되는 추세로서 '선택된 사람, 정예, 사회의 중추'

로 해석되어진다.

반면 본 논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지성인'으로서의 'intellectual'의 한글 사전을 살펴보면 '동물학상 현재의 인류를 가르켜 일컫는 학술어로서, 뜻이 바뀌어 근대의 인간관에 있어서의 인간규정의 한가지로 지성, 예지를 인간의 본질로 보는 것' 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과거 소수 정예의 대학교육과 오늘날 대중화되어진 대학교육에서의 전문적 지식인으로서의 학습자의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로 나뉘어 질 것인가.

물론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지적 발전을 꾀하는 것은 재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이 스스로의 진정한 재능과 자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갈등과 회의 속에서 관문처럼 걸처지는 대학교육은 분명 전문지식과 아울러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자기본성애의 지성적인 깨달음을 알아 가는 역할도 반드시 같은 비율로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의 교육현장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원 중심의 중심이동이라는 지식의 고급화, 고령화를 떠나서, 대학의 양적 팽창을 지성의 질적 확산으로 효율화 시키므로써, 그 지성의 힘을 한 개인의 변혁과 아울러 그 개인을 기점으로 한 가정, 사회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개발의 중심원 역할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각성적인 지성의 몫은 '올움'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숭선이며, 문화비평의 기능이며, 또한 공동체의 가치척도로서의 의식기준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 교육의 전환 4. 지성의 사회환원 역할로의 확장성

이미 기업의 사회환원 역할로서의 공익성은 기업이미지 재고의 커다란 관건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지성의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공익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자리하여야 하는 것인까를 자문해 본다.

그것은 이미 그의 지식과 재능을 그 분야의 성실한 직업인으로 종사한다는 사실 하나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겠으나, 본 논의에서 점점하고자 하는 차원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넘어선 건강한 사회의 올바른 흐름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서 그 목적과 방법의 끊임없는 성찰적 자세로서의 지성

적인 태도의 실행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인 부의 축적으로 생활규범의 기준과 모델이 모호해지며 방향을 잃어갈 때, 물질을 넘어선 지성의 역할로 그 일상적인 규범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의식을 환기시키며, 적용일변도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하고 제시하며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사회적인 모델 근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서 개인의 참지성적인 중심원으로부터, 각성의 과묵원으로 확장되어져 그 사회가 더불어 함께 깨어 수평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짐이 바로 본 논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 맺음말 그리고 몇 가지 제안

이와 같이 본 논의는,

진반적인 교육현장에서의 방임과 방목의 관계는 책임자유를 향한 자율성으로, 적용으로부터 창조발견으로의 문제제기는 학집주의의 제빠른 스타일(style)간파와 답습이 아닌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과 자신 고유의 개성과 잠재성을 새롭게 발견하므로써, 자기가치의 긍정성을 회복하는 참구의 방법으로, 그리고 시대의 얼굴이자 반영체로서의 근거를 제시하고, 가치를 결정해 나가는 중심역할로서의 지성의 숭선직적이고 공익적인 사회환원 기능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몇 가지 간략한 제안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구두로 보충설명)

1. 의사소통의 매체 전환시대에 있어서의 디자인 철학
  - ▶ 설명적 문자로부터 이미지적 시각언어로서의 비중중대
2. 회복, 환원 세대로서의 '중심세우기'와 '세계화'의 관계
  - ▶ 문화의 종속적 동화우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와 문화의 수평적 상보공존 (독일과 이태리의 관계에서)
3. 언어의 시(詩)적 기능과 정보제공으로서의 제반환경
  - ▶ 의식과 민족정서를 담아내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로서의 시(詩)에 의한 디자인 교육연계와, 가장 직접적이며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의 정보비교근거로서, 현재 전공분야의 자료도서 목록 경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것'에 대한 미중과 활용반도의 교육현장 먹이야 (in put) 나오는 것 (out put) 이 아니겠는가?